

对人对地对

배포 : 2024년 8월 21일(수)

윤석열 대통령, 통일·외교 원로 오찬 간담회 - 「8.15 통일 독트린」의견 교환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21, 수) 통일·외교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국내 자유민주 통일 역량 결집, 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 강화,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 대한민국 지지와 관련해 통일 외교 분야 석학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원로들은 지금 이 시점에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사회에 진실과 자유가 함께 성장하도록 해 자유 민주주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원로들은 우리 국민이 통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면서 헌법정신과 자유규범 질서가 부여하는 사상적 의미를 되짚어 보도록 쉽고 설득력 있는 통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AI 시대에 부응한 콘텐츠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통일비서관실

또한, 국제사회가 최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통일 비전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오찬 간담회에는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반기문 前 UN 사무총장, 강인덕 경남대 석좌교수,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 이사장, 윤병세 청와대재단 이사장,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현인택 前 통일부 장관,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끝〉